

□□□ 임상가를 위한 시리—즈 □□□

—제 7 회—

혈액검사 판정에 관한 임상 증례.....	김	용	관
염 증.....	조	한	국
치아우식에 있어서 세균이 생산하는 다당류.....	정	태	영

血液檢査判定에 關한 臨床症例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외과학 교실

김 용 관

前述한바대로 아무리 有名한內科醫라고 해도, 急性血液疾患만은 血液檢査를하지 않고서는 診斷을 내릴수 없다. 이 점을 우리 臨床家들은 명심해야 하겠다.

1. 齒齦出血과 齒齦肥大 및 高熱을 主訴로하는 경우, 數日前(死亡)부터 血液像과 臨床所見이 거의 一致하였기 때문에 誤診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38—39°C 內외의 高熱과 齒齦出血, 또는 無痛性齒齦肥大 등을 隨伴한 환자를 單純한 齒齦炎으로 處置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반드시 血液檢査를해서 出血의 本態齒齦肥大的原因을 규명하면 臨床所見과 血液像의 一致를 發見하여, 血液疾患을 確診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나, 死亡直前까지 急性白血病特有的 症狀를 口腔內에서 發見하는 일은 다소 臨床經驗만 있으면 누구나 視診과 問診만으로도 可能하다.

上記한 예에 있어서도 齒齦出血이 생기고, 齒齦肥大가 無痛性인가, 또는 壞疽性齒齦炎 扁桃腺炎은 어떤 理由로 생기 있는가, 등등 생각하면 血液檢査는 반드시 해야 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臨床所見과 比較검토해볼때, 어떤 血液疾患에 關聯된 齒齦出血, 齒齦肥大, 壞疽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疾患과 關聯된 症狀로 誤診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2. 輕度の 齒齦出血, 拔牙後出血, 拔牙후 疼痛, 高熱 등을 主訴로하는 환자로서 內科에서는 감기 물살로 診斷되었고, ENT에서는 扁桃腺炎으로 診斷하여 治療中 齒痛을 隨伴하였기 때문에 齒科에서 原因齒라고 認定된 7기의 拔牙을 하였는데, 拔牙후 出血이 甚하여 來院한 환자로서, 血液檢査에는 急性白血病으로 確定된후 약 2個月 후에 死亡한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마치 감기 물살과 같이 전신상태이였기 때문에 內科醫는 우선 감기로 진단하여 治療를 하던중 嚙下痛이 생기었기 때문에 ENT에 가서 진찰받은 결과 감기에 隨伴된 扁桃腺炎이라고 하여 3, 4日間 治療를 받은 결과 매우 良好해졌으나 7기痛이 併發하였음으로 다시 齒科醫를 찾아 진찰한 결과 7기의 殘根狀態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拔牙

를 하였다.

그러나 不幸히도 拔牙후 出血이 甚하고 40°C 內외의 高熱을 隨伴한 患部の 腫脹이 생기어, 入院加療를 위해서 來院하였다.

上記한바와 같이 血液檢査는 하지 않고. 다만 臨床所見만을 표준해서 診斷과 治療를 했기 때문에 白血病을 看過한 拔牙라는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發生한齒科醫의 受難이라 하겠다. 이런 경우 血液檢査없이, 누구나 齒性疾患으로 생각할수 있는 예이지만 顎下淋巴腺, 頸部淋巴腺을 觸診해서 그 腫大를 認知한다면, 眼瞼結膜의 貧血度, 롬펠레—테氏 反應 그 他皮下貧血度등을 좀더 신중히 관찰 점검했다라도 拔牙과 같은 실수는 안했을 것이다. 死亡前에 檢査한 血液像中特記할것은 赤血球가 180萬餘이고 「헤모그로빈」은 48%까지 감소되었고 白血球는 16萬이란 多數를 나타내는 急性白血病의 一型이 었다. 이와같이 白血病特有的 症狀이 口腔에 出現하여 1個月以上 있다가 死亡하는 예는 多數이며, 예로는 途中 약간 良好한 경과를 취하다가 다시 惡化되어 死亡하는 例도 많다.

前述한바 血液檢査判定에 있어서 모든 誤診의 根本原因은 臨床所見과 血液像變化를 比較검토하는데있어서 片見과 我執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臨床所見만을 重視하게 되면 血液像을 輕視하게 되고 血液像만을 重視하게 되면 臨床所見을 等閑해서 不意의 재난을 겪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淋巴腺의 腫大 하나가 淋巴腺炎이라느니, 膿汁의 滯溜되었으니가 切開하고 또한 다시 膿汁의 滯溜되었으니가 再切開한다는 따위의 態度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木工이 톱으로 나무를 짜르는 데도와 조금도 다른마 없다.

또 吾人臨床家들은 일일이 환자마다 무조건 血液檢査를 할수도 없기 때문에, 診療에 나타난 症狀과 經過를 臨床的으로 注意 깊게 관찰하고 검토한 결과, 서로 엇갈리는 結論이 나올경우 반드시 血液像變化를 比較對照하여 적어도 어느정도 一致된 判定下에 治療를 해야한다.